

# 코로나19 추경 11조7천억 편성...“소비 되살린다”

### 文정부 최대 규모 메르스 넘어서...경기보강 패키지 31조6천억원 저소득층·노인·아동 500만명에 소비쿠폰...영세사업장 임금 보조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인 이번 추경은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역대 감염병 대응 추경 중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를 넘어 가장 크다.

방역체계 보강 외에 피해를 복구하고 침체된 소비 등 내수를 살려 경기를 보강하는 데 거액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지난해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전체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歲出) 확대분 8조5000억원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歲入) 경정분 3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 8조5000억원은 방역체계 보강·고도화(2조3000억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조4000억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세출 확대분의 70% 이상이 소비 등 내수 되살리기에 투입되는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비쿠폰은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조7000억원을 풀어 긴급 초저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임금을 4개월간 1명당 7만원씩 추가로 보조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이를 이미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11만원과 합하면 영세사업장 80만곳에 4개월간 평균 100만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코로나19와 사무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는 특별 고용안정 대책 등에 특별예산 6천억원을 지원한다.

방역체계 보강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의

료기관 손실보상(3500억원)과 대출자금(4000억원),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8000억원)에 배정했다. 손실보상 확대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1조 3500억원 늘렸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음압구급차 146대를 국비(292억원)로 구매해 일선에 보급하고,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만든다.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세우고, 바이러스 전문 연구소도 설립한다.

이번 추경안으로 정부와 공공부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의 규

모는 모두 31조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중 재정지원 규모는 15조8000억원가량이다. 정부는 사태 전개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6년 연속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2013년 추경 17조3000억원 이후 가장 크며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이자 최대 규모다. 현 정부 들어 추경안은 2017년 11조원, 2018년 3조8천억원, 2019년 5조8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안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4조2000억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 11조6000억원을 넘어 역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 천주교광주대교구 22일까지 미사 중단 연장

### 주일미사 영상제작해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 게재

83년 만에 한시적으로 미사를 중단한 천주교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대주교)가 모든 미사와 모임 중단을 당초 5일에서 오는 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대교구는 4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미사 및 모임 중단 연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천주교광주대교구는 지난달 22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 150여 성당 미사 중단을 발표할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집에서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주일 의무를 대신하며 교구장 대주교와 총대리 주교, 사무처장 신부가 집전하는 주일미사를 영상으로 제작해 교구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또한 본당 신부는 휴대문 문자나 SNS 등을 통해 성당에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을 위해 신부 명의의 사목서한이나 강론, 안부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대교구는 감염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이들과 약조건 속에서도 환자들을 돌보고 감염병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위한 특별 기도도 부탁했다. 또한 본당 또는 지구 차원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의료진들, 관련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노력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대교구는 위의 사항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4일 오후 광주 남구 남평주농협 하나마트에 마스크를 사러 나온 100여명의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곳 하나마트에서는 이날 200개의 마스크가 들어와 총 40명분만을 판매할 수 있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소방, 대구 지역 119구급대 긴급 지원

### 구급차 10대·대원 21명 파견 2교대로 환자 이송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대구에 119구급대를 긴급 지원해 활동에 들어갔다.

전남소방은 현재 대구지역에 구급차 10대, 구급대원 21명을 파견해 2교대로 환자 이송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전남소방은 지난 2월 28일 소방청 동원령 1호 발령에 따라 구급대원 5명, 구급차 5대에 이어, 최근 구급대원 5명을 대구 지역으로 파견했으며, 3일 동원령 2호 발령에 따라 구급차 5대, 구급대원 11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동원령’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소방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소방청장

이 발령하며, 동원 규모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1호에 소방력 5%, 2호에 소방력 10%, 3호에 소방력의 20%를 지원하게 된다.

전남소방은 대구에 파견된 119구급대가 현재까지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53명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파견된 대원들은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코로나19가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정 총리 “마스크 배급제 준하는 공급 방안 마련”

### 공적 유통망 정부 개입...“일본 독립 기구화는 바람직”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공급 논란과 관련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다면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9일째 대구에 머무는 정 총리는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 문제에는 “세계 일류 수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질병관리본부 독립 기구화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 가는 기업인 등을 위한 무감염증 증명서 발급 발인과 관련해선 “기업활동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제한하던 카타르가 조치를 강화했고,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격리, 코스타리카와 덴마크 등 2개국도 검역을 강화하면서 새로 이

## 세계 절반이 한국발 입국 제한...94곳으로 늘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한국에 문을 닫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94곳으로 전날 밤보다 3곳이 늘었다.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전 세계 절반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한국인을 그냥 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입국을 제한하던 카타르가 조치를 강화했고,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격리, 코스타리카와 덴마크 등 2개국도 검역을 강화하면서 새로 이

름을 올렸다. 조치별로 보면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데가 33곳, 대구·경도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하는 나라가 5곳이다.

카타르가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한 외국인(거주허가증 소지자는 격리) 입국을 금지했다. 원래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였는데 아예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을 격리하는 국가·지역은 중국을 포함해 22곳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신안군 공고 제2020-283호

##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국도2호선 신안-송풍 도로시설개발공사」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5일  
신 안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일반 063-850-9226), 신안군 안전건설과(☎ 일반 061-240-84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치도

1. 사업개요

- 사업명 : 국도2호선 신안-송풍 도로시설개발공사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5.06
- 노선번호 : 일반국도 2호선
-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송풍리, 대천리, 동서리 일원
- 사업량 : 2차로 신설, 3차로 확장 (L=6.06km, B=11.5m~15.0m)
-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주소 :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52길27(남중동)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국도2호선 신안군 압해읍(압해-송풍) 구간 3차로 확장 및 2차로 신설을 통해 병목현상 해소,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관계서류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시간
• 위치도	• 신안군 홈페이지	2020.03.05.~	
• 위치도	• 신안군 안전건설과	2020.03.20.	09:00 ~ 18:00
• 토지세목 조서 등	• 도로시설	(15일간)	

※ 사업구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내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 우 편 :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안전건설과 도로시설